

4세대 방사광가속기 호남 구축 왜 필요한가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유치 지지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 대학총장들이 지난달 10일 오후 전남도청에서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유치 적극 지원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제공>

가속기 총청 1개·영남 3개...호남 '0'

전남도가 유치전에 뛰어난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는 한전공대와 연계해 에너지 신소재, 신약 개발 등 모든 과학 연구에 활용 가능한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의 핵심 연구시설이다. 도는 호남권에 구축된 산업 기반과 보유자원을 고도화해 국가 과제인 첨단 소재·부품 및 기초과학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전북은 가속기 연구 시설이 전무해 첨단 연구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4세대 가속기 호남 구축은 필수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호남권 침체 가속화 전환점 절실
국비 8천억원 등 총 1조원이 투입될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는 둘레 800m로 비단길이 40개가 설치된다. 방사광가속기는 빛의 속도로 전자를 가속해 얻은 방사광을 통해 물질의 기본 입자를 관찰,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초정밀 대형 연구시설이다.

전남도가 방사광가속기 호남 구축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수십 년간 심화된 호남권 침체와 낙후의 악순환을 더디게 할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도권 인구 집중은 1970년 28%에서 2018년 50%로 가속화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 뿐만 아니라 지방권역 간 인구 격차도 커지고 있다. 1970년 이후 호남권은 122만명(1970년 632만명→2018년 510만명)의 인구가 감소한 반면, 충청권은 137만명(426만명→563만명), 영남권은 364만명(937만명→1천301만명) 증가했다. 충청권은 2000년 이후 증가가 두드러진다. 이는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수도권·충청권 편중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362개 공공기관 분포 지역은 수도권 157개, 충청권 84개, 영남권 74개다. 혁신도시 조성으로 일부 공공기관이 이전했음에도 호남권에 있는 공공기관은 29개에 불과하다. 미래 혁신 성장과 청년 고용을 이끌 첨단 연구 인프라도 수도권과 충청권 중심으로 구축돼 있다. 초대형 연구시설이 충청권 4개, 영남권 3개, 수도권 2개인 것과 달리 호남권은 단 1개도 없다. 총 R&D 투자액(2017년 기준) 역시

992년까지 대전 대덕연구단지를 조성한 데 이어, 2009년부터 오송 청담의료복합단지(1조7천억원)를 조성하고 있다. 2011년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2조3천억원)까지 국책 연구기관과 초대형 연구시설이 충청권에 집중 건설되고 있다. 현재 원자력연구원과 항공우주연구원 등 연구기관 45개에 연구기술키 3만6천명이 근무 중이다.

가속기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재 국내 가속기는 충청권에 1개(대전 중앙이온), 영남권에 3개(포항 방사광, 경주 양성자, 부산 중입자) 조성돼 있다.

◇한전공대와 연계 시너지효과 가능
이런 상황에서 호남권의 방사광가속기 유치 노력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호남권 21개 대학 총장이 지난달 10일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결의한 데 이어, 지난달 25일엔 호남권 3개 시·도지사(김영록 전남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손을 잡고 공동 유치를 선언했다. 국정과제인 한전공대와 연계한 세계적 에너지신산업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방사광가속기가 절대 필요한 시설이라

는 게 호남권의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9월 국가균형위원회는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으로 결정한 바 있다. 호남권은 과거 포항공대 역시 대학 설립과 함께 방사광가속기 설치로 발전을 이룩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가속기가 충청과 영남에 집중돼 있는 만큼 대형 연구시설의 국토 균형 배지로 균형발전과 시설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충북 오창의 경우 대전 중앙이온가속기와 함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이미 지정돼 있는 것도 향후 평가 과정에서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다수 과학자들이 수도권 중심의 접근성 보다 균형발전, 시설 안정성을 중시하고, 해외 방사광가속기 역시 지방 위주로 입지를 선정하고 있어 향후 부지 선정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실제 4개 시·도(인천, 강원, 충북, 전남)와 2개 연구기관(원자력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이 지난달 가속기 이용 관련자 3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가속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가속기 데이터 털의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32.6%), 빔타원의 충분한 확보(27%), 운영인력 전문성(15.4%), 지원 인력 충분한 확보(11.6%), 접근 편의성(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스웨덴 맥스포연구소는 스톡홀름에서 600km 떨어진 룬드시에 위치해 있고 일본 슬릿제이 역시 도쿄에서 350km 거리의 센다이시에 조성됐다. /김재정기자

전남도, 美메릴랜드주에 의료용품 지원

의료용 장갑 8만장·가운 600벌...지자체 중 전국 최초

전남도는 6일 "자매결연 지역인 미국 메릴랜드주에 코로나19 퇴치에 필요한 의료용품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선 지원할 품목은 의료용 장갑 8만장과 의료용 가운 600벌로 7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메릴랜드주는 지난 5일 기준 확진자 3천609명, 사망자 67명이 발생했으며 미국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급증으로 각종 의료용품이 부족해지자 전 세계 자매결연 지역에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전남도의 메릴랜드주에 대한 의료용품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미국에 의료용품을 지원한 첫 사례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김영록 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두가 어려울 때일수록 빛이 나는 계

형제"라며 "이번 지원으로 메릴랜드주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메릴랜드주 래리 호건 주지사는 "가장 힘든 시기에 친구에게 기댈 수 있어 큰 위안이 된다"며 감사를 전했다. 한편, 세계적 외과대학인 존스홉킨스 의대가 위치한 메릴랜드주는 전남도와 2013년 우호교류, 2017년 자매결연을 맺은 미국 동부의 주요 나주 출신 유명 교인이 퍼스트 레이디로 있는 곳이다. 전남도와 메릴랜드주는 2014년 전남도 한방산업진흥원과 메릴랜드주 통합의학센터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통합의학 분야 연구를 진행했으며 2016년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과 메릴랜드주 해양환경연구소도 협약을 체결하고 지속 협력하고 있다. /김재정기자

광주 다함께돌봄센터 올해 16곳 신설

광주시는 올해 돌봄수요가 많고 지역 아동센터가 부족한 수안, 신창, 효천, 첨단2지구 등에 다함께돌봄센터 16곳을 설치할 예정이다. 6월 시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초등학생 아동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내 도서관, 동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과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다함께돌봄센터를 2022년까지 61곳으로 확대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부터 오후 7시까지 돌바라는 공적 돌봄시설이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고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이용료는 특별프로그램 활동비로 월 3만원이며, 방학중 급식비는 실비 부담한다. 앞서 지난해 상반기 개소한 1호점인 북구 연제동 연제큰꿈 다함께돌봄센터와 2호점인 동구 계림동 푸른마을 다함께돌봄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휴원 중이지만 현재 긴급돌봄을 시행하고 있다. 3호점인 광산구 선안동 늘봄 다함께돌봄센터는 선운휴먼시아 아파트 주민공동 생활시설에 설치됐다. 시는 학부모 편의를 위해 코로나19 종식 이후 오전(7시-9시)과 오후(7시-9시) 각 2시간씩 연장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종민기자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 개관준비단장 임명

전남도는 6일 도립미술관개관준비단장으로서 이지호(60·여) 전 대전이음노미술관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대 서양학과를 졸업, 프랑스 파리대학 조형예술학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전시립미술관을 비롯, 대전이음노미술관장,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을 역임했고 광주비엔날레 학술위원, 연세대 대학원 겸임교수 등으로도 활동했다.

이 단장은 이날 임용장을 수여받은 자리에서 "전남도립미술관을 앞으로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며 "전남 미술문화의 세계화를 주도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공동체 허브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이지호(60·여) 전 대전이음노미술관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재정기자

2020 축제경영 리더십 아카데미

축제이벤트 경영사 3급 자격 과정

주최 |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
주관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 TV
문의 | 광주매일신문 TV본부 062) 650-2024, 2009

2020 축제경영 리더십 아카데미는?

- '축제 산업화'를 통한 문화관광 활성화 모델 제시
- 축제·관광이벤트 경영 디자인 맞춤형 콘텐츠 제공
- 도시재생, 문화재활용 '지역개발형 축제' 인식 정립
- 이론·실무 겸비 국내외 전문가 강사진 네트워크 구축

2020 축제경영 리더십 아카데미 특전

- 축제이벤트경영사 3급 자격증 수여(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증)
- 대한민국 3대 대표축제(보령 머드, 김제 지평선, 진주 남강유등) 책임 실무자가 직접 전수하는 축제 노하우
-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IFEA KOREA) 총회 및 주요 컨퍼런스 초대
- 해외 세미나 및 축제 벤치마킹 등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기회 부여(경비 자부담)
- 축제전문가와 인적 네트워크 형성, 축제 개발 및 컨설팅, 평가 등 지원

2020 축제경영 리더십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요강

- | **지원자격** | 광주·전남 자치단체 축제관련 공직자, 축제 민간위원회 임직원, 축제 관련 기획사 임직원 및 축제 산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 | **모집인원** | 100명 내외
- | **교육기간** | 2020년 6월 5일 개강-8월 21일 종강(3개월 과정 총12강)
- | **강의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5시
- | **강의장소** | 광주광역시 빛고을문화관 다목적실
- | **전형방법** |
 - 서류전형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수강료** - 220만원(부가세 포함)
 - 접수마감일 - 2020년 5월 30일까지
 - **접수** - 전화 및 방문접수
 - 문의 - 광주매일신문 TV본부 062) 650-2024, 2009
 - **입금계좌** - 광주은행 016-107-391900 (주)광주매스컴
 - 주소 -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 1-21)